

비상경제본부 회의 개최, 중동 리스크 관리에 만전

- 에너지·공급망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민생부담 경감에 총력 -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9.3(목) 08:0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본부회의를 주재하고, 중동전쟁 거시경제·물가대응반, 에너지 수급반, 금융안정반, 민생복지반, 해외상황 관리반 5개 반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.

* 참석 : 재정경제부 제2차관(주재),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,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,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, 금융위원회 상임위원

[대응반별 주요 점검사항]

- ▶ (거시경제·물가대응반)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및 취약차주 지원방안 추진 농축수산물 역대최대 할인지원 (1,030억원), 성수품 공급확대(18.3만톤)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 신속추진 + 할인지원 확대 등 추가지원방안 적극 강구
- ▶ (에너지 수급반) 원유·나프타는 9~10월 전년 평균대비 90% 수준 확보중이나, 대체물량 도입을 촉진하고 항로우회에 따른 수급공백 보완을 위해 비축유 SWAP 재가동(8.24일~) 등 추진
- ▶ (금융안정반)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 18.7조원, 채권·자금시장 안정프로그램 10.5조원 집행(~9.1일)
- ▶ (민생복지반) 금융 위기가구 포함 총 16만명 대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(8.24~10.16일) 및 맞춤형 지원 추진 등
- ▶ (해외상황 관리반) 미국의 對이란 제재 관련 점검, 에너지 수급·물류 동향 점검 등

허 차관은 “미국-이란 간 무력 충돌 재개 등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지속”되고 있다고 밝히며 “각 대응반별로 높은 긴장감을 유지하며 중동상황 및 각 부문 영향을 면밀히 점검·대응할 필요”가 있다고 강조했다. 아울러 “중동전쟁 여파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, 추석 민생안정대책,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, 금리상승기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기발표 대책을 신속 추진하는 등 취약부문 지원노력을 강화”할 것을 당부했다.

참석자들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하에 중동 리스크가 국내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. 주요 원자재 수급 및 가격 변동 상황을 빈틈없이 점검하는 한편,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.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	책임자	과 장	조성중 (044-215-27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수현 (044-215-2731)